



2025 신한솔뱅크 KBO 리그 개막전 NCC다이노스대 KIA타이거즈의 경기가 열리는 22일 오전 광주북구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야구팬들이 경기장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반갑다 야구야, 직관이 제맛... “기아 V13!” 광주팬들 열망

“기아(KIA) 없이는 못 살아!”
2025 신한 SOL뱅크 KBO 리그 개막전 NCC다이노스와 KIA타이거즈의 경기가 열리는 21일 오전 광주 북구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완연한 봄 날씨 속 경기 시작을 불과 다섯 시간여 남겨두고 모여든 팬들은 겨우 내 참아온 야구를 향한 열망을 스스로 없애기 뿔어냈다.

2025 프로야구 개막전 광주챔피언스필드 팬들 모여들며 ‘복새통’... “왕조 건설 원년”

지난해 우승 분위기를 이어가자는 듯 한 마음 한 뜻으로 KIA의 유니폼을 입고 오는가 하면 응원 봉을 두드리며 개막전 열기를 고조시켰다.
경기장 바깥에 내걸린 KIA의 개막전 슬

로건 'V13 時(시)작'을 배경으로 인증사진을 남기고 야외에 전시된 2024 정규시즌·포스트시즌 우승 트로피를 찍으며 지난해를 추억했다.
일부 좌석 현장 판매 장구도 지난해 포

스트시즌 구대 경쟁 당시를 연상케 하듯 인파로 붐볐다. ‘세 시간 넘게 기다렸다’고 말한 한 팬은 줄어드는 줄을 보며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팬들은 기다림을 참아내며 함께 경기장을 찾은 동료 또는 친구들과 경기 내용을 예상했다. 지난해 30홈런-30도루 대기록을 달성한 KIA 김도영의 올해 성적을 예측하고 떠오르는 루키 박재현의 선발 등판 여부를 기대하며 열띤 토론을 펼쳤다.
올해도 연승 가도를 이어가면서 KIA의 통합 열세번째 우승, 2연속 포스트시즌 우승을 통한 왕조 건설을 염원했다.

김규희(21·여)씨는 “야구에 관심이 없다가 지난해 친구의 권유로 우연히 포스트시즌을 직접 관람할 수 있었다. 이후 매력에 푹 빠져 개막전이 열리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며 “김도영 선수가 지난해 세운 대단한 기록을 올해 꼭 넘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성일(45)씨는 “영광스러운 개막전을 두 눈으로 볼 수 있어 감격스럽다. 개막전 외국인 선수끼리 맞붙는 상황에 선발 네일의 호투가 기대된다. 소크라테스를 대체할 자리를 누가 맡을지도 정말 궁금하다”며 “KIA가 올해도 짜릿한 역전승 많이 하자”고 응원했다.

이은(30·여)씨도 “KIA는 지난해 강팀에 강하고 약팀에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때로는 격정스러운 경기를 많이 보여줬다. 2위를 상대로만 화려했던 전적, 30대 6으로 대패했던 두산전을 잊을 수 없다”며 “올해 역량을 제대로 끌어올려 반드시 열세번째 우승으로 향하자”고 했다.

NC팬 공지혁(38)씨는 “호랑이 굴에만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며 “연고 지역이 아닌 곳에서 맞는 개막전에서 우리 선수들이 이길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22일 오후 광주 북구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5 신한솔뱅크 KBO 리그 개막전 NCC다이노스대 KIA타이거즈의 경기, 3회말 1사주자없는 상황에서 안타를 친 KIA 김도영이 왼쪽 다리 통증을 호소하며 덕아웃으로 돌아오고 있다. /뉴시스

‘8회에만 8점’ 디펜딩 챔프 KIA 대역전승으로 2025시즌 출발

지난해 MVP 김도영 부상에는 ‘울상’

2024시즌 통합 우승의 기쁨을 누린 KIA 타이거즈가 대역전승을 거두며 2025시즌을 출발했다.

다만 지난해 정규시즌 최우수선수(MVP)이자 팀 내 주축 타자인 김도영의 부상에 마음껏 웃지는 못했다.

KIA는 22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벌어진 2025 신한솔뱅크 KBO 리그 NC 다이노스와의 개막전에서 8회에만 8점을 올리며 9-2로 역전승을 거뒀다.

KIA는 지난해 정규시즌에 87승 2무 55패를 작성해 1위에 올랐다. 한국시리즈에 직행한 KIA는 삼성 라이온즈를 4승 1패로 물리치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2017년 이후 7년 만에 통합 우승을 차지했다.

올해도도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KIA는 2025시즌도 승리로 열어졌

었다. 승리에도 김도영의 부상은 KIA에 아쉬움으로 남았다. 이날 KIA의 2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한 김도영은 3회말 1사 후 좌전 안타를 치고 나간 뒤 왼쪽 허벅지에 통증을 호소했다. 병원 정밀검사 결과 햄스트링 손상 진단이 나왔다.

이날 선취점은 KIA가 냈다. 2회말 2사 후 김선빈과 이우성, 김태균이 3연속 안타를 때려내 먼저 1점을 뽑았다.

선발 제임스 네일이 5회까지 무실점 투구를 이어가 1점차로 앞서가던 KIA는 네일이 내려간 후 역전을 허용했다.

NC는 6회초 김주원의 안타와 손아섭, 맷 데이비스의 연속 볼넷으로 1사 만루를 일궈고, 박건우가 2타점 좌전

적시 2루타를 날려 2-1로 역전했다. 끌려가던 KIA는 8회 힘을 냈다.

8회말 1사 1, 2루에서 나성범이 우중간에 떨어지는 적시타를 때려 균형을 맞췄고, 패트리 위즈덤의 볼넷으로 이어간 만루 찬스에서 최형우가 중견수 키를 넘기는 2루타를 작렬해 주자들을 홈으로 불렀다.

이어진 1사 2, 3루에서 김선빈이 2타점 좌전 적시타를 날리면서 KIA는 6-2로 앞섰다.

이후 한준수의 썩기포가 터졌다. 박정우의 2루타로 이어진 1사 2, 3루에 타석에 들어선 한준수는 NC 우완 불펜 투수 김재열을 상대로 오른쪽 담장을 넘기는 썩기 3점포를 쏘아올렸다.

KIA는 9회 마운드에 오른 황동하가 안타 2개를 맞고도 1이닝을 무실점으로 책임져 그대로 이겼다.

불펜이 흔들리면서 승리 투수가 되지 못했지만 KIA 외국인 에이스 네일은 5이닝 2피안타 5탈삼진 1사사구 무실점으로 패투를 펼쳤다.

8회초 등판해 1이닝을 퍼펙트로 막은 KIA 전상현은 팀이 8회 역전하면서 승리 투수가 됐다.

2024시즌 뒤 트레이드를 통해 키움 히어로즈에서 KIA로 이적한 ‘특급 불펜’ 조상우는 이적 첫 등판에서 아웃 카운트를 하나도 잡지 못하고 안타 1개, 사사구 2개를 내주며 흔들렸다.

KIA 타선에서는 김선빈이 3타수 2안타 2타점 1득점으로 맹타를 휘둘렀다.

NC 3번째 투수로 나선 전사민은 1/3이닝 2피안타 2사사구 4실점으로 흔들리면서 패전 투수가 됐다. /뉴시스

동.호지정 계약 중

3,214세대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된다.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X1 | FORENA

★

방문예약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증정!

※ 상기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PREMIUM6					
NO.1 BRAND	총 3,214세대 대단지의 품격	원스톱 도보 학세권	일상을 높인 특화설계	다채로운 커뮤니티	쾌적한 에코라이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자이와 포레나의 합작	복구를 대표할 대규모 브랜드 타운	단지내 어린이집 및 단지 앞 경양초, 운안중 등 안심 학세권	채광과 조망을 고려한 남향 위주 단지 배치, 조망형 유선 커피스타이션 전 타석 리난간 적용, 세대 전용 창고 등	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오픈 카페스타이션 전 타석 GDR골프연습장 및 스크린 골프 등	약5.5만㎡ 규모의 단지 조경과 운암산, 중외곡천 등 힐링 자연환경

발코니
무상

중도금
무이자

일부 품목
무상

+

파격적
혜택

총 3,214세대 중 일반분양 1,192세대 [전용 59㎡ / 75㎡ / 84㎡]

062) 607-8338

시흥 운암 3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시흥 GS건설 | (주)한화/건설 | HDC현대산업개발

경기 중 정신 잃었던 조성권... 프로축구 광주 “이상 없다”

프로축구 K리그1 광주FC 중앙 수비수 조성권이 경기 중 머리에 충격을 입고 쓰러졌지만, 다행히 건강 상태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는 지난 22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포항스틸러스와의 하나은행 K리그1 2025 4라운드 순연 경기에서 2-3로 패배했다.

승점을 얻지 못한 것뿐 아니라, 수비수 조성권이 경기 중 정신을 잃는 위험한 일까지 겪었다.

조성권은 전날 7분 선제골을 넣는 등

좋은 활약을 보였으나, 경기 종료 직전에 아찔한 상황을 맞았다.

후반 추가 시간 공중볼 경합 도중, 포항 어정원과 충돌한 뒤 중심을 잃고 그라운드로 떨어졌다.

머리부터 강하게 떨어진 조성권은 한동안 정신을 잃는 모습이었다.

광주 선수들이 응급처치에 나섰고, 잠시 후 스스로 몸을 움직이는 듯한 조성권은 구급차에 실려 나갔다.

다행히 조성권의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고 한다. /뉴시스

23일 광주 관계자는 뉴시스를 통해 “MRI 검사에서 문제가 없는 거로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부상 당시 의식 소실이 있었기에 하루이틀 정도 경과를 관찰하기 위해서 입원해서 지켜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선수 본인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말 괜찮다. 다들 걱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금방 회복할 테니 경기장에서 뵙겠다”고 전했다. /뉴시스